

동사의 소절보어 및 그 구조*

한 재 현**

목 차

- I. 머리말
- II. 보어절의 유형
- III. 소절의 통사구조
- IV. 결 론

I. 머리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가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사 다음에 필수적으로 오는 보어(complement)의 유형에 따라 동사를 하위범주화하기도 한다. 이 보어 중에는 그 보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문장의 기능을 하는데, 이를 보어절(Complement Clauses) 범주에 둔다. 이 보어절을 전통적으로 세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 유형의 절의 특징을 논의해왔다.

먼저, 세 유형의 보어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논증들을 고찰하고 요약해서 소개하겠다. 다음으로, 이 셋 중의 하나인 소절(Small Clauses)보어에 대한 통사구조 또는 의미구조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한 후 종합해 보겠다. 그 다음으로 서술구(Predicate Phrase) 분석의 보편성을 찾아 그 타당성 여부를 밝히겠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요약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 본 논문은 1993년도 숭실대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

Ⅱ. 보어절의 유형

문장이 절(clause) 하나만으로 된 경우와 절이 둘 이상으로 된 경우도 있다. 절이 둘 이상 결합되는 경우 그 결합된 절의 기능에 따라 등위접속문이 되기도 하고, 종속접속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주절의 기능을 하는 단문의 내면구조를 가정하는 것이 복합문의 구조를 밝히는데 선결조건이라 본다. 이 구조를 분석할 때 문법의 틀에 따라 문장의 구조규칙에 차이가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보어절을 하위분류할 때 한정자질(Finite Feature)과 시제자질(Tense Feature)을 근거해서 분류했다. Huddleston(1984:208-23)은 다음과 같이 한정절(Finite Clauses)과 비한정절(Nonfinite Clauses)의 예를 보여준다. 먼저 보어의 기능을 하는 한정절의 종류는 아래 예문처럼 네가지다.

- | | |
|--|---------------|
| (1) a. [She assumed] that he was right. | Declarative |
| b. [She asked] who I was. | Interrogative |
| c. [She remembered] what a struggle it had been. | Exclamative |
| d. [She demanded] he be told. | Jussive |

다음 비한정절의 경우는 다시 두 유형으로 세분하는데 그 예문은 각각 아래 (2)의 a와 b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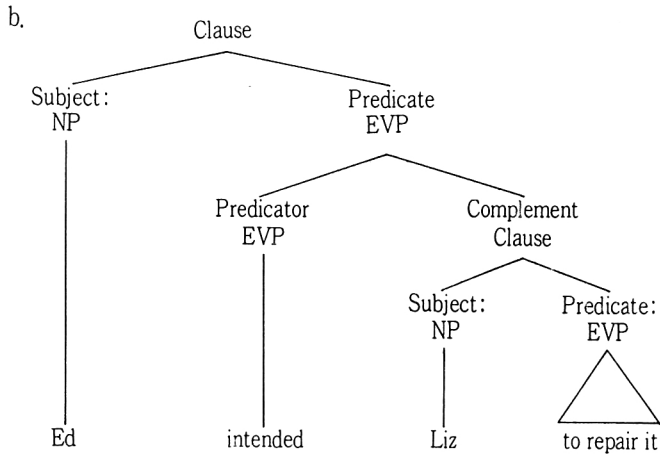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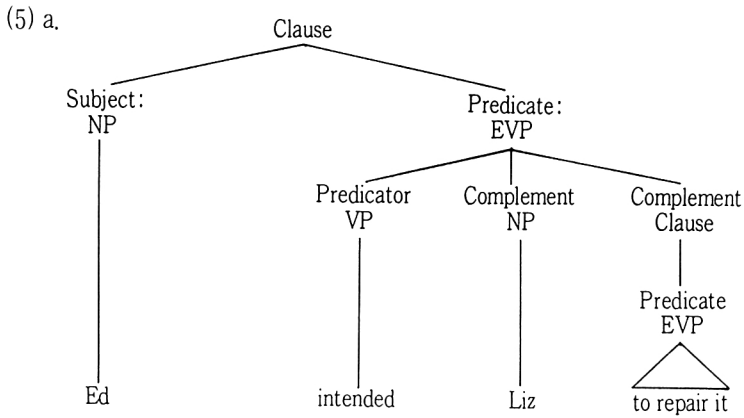
- | |
|-----------------------------|
| (2) a. He tried to sell it. |
| b. She advised me to do it. |

위 두 문장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다. 두 문장의 외견상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면 b는 부정사 앞에 명사구 *me*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어기능을 하는 네 종류의 시제 없는 동사구(VP)가 보어 자리에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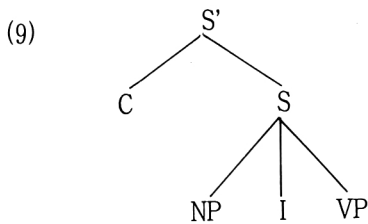
- | | |
|----------------------------------|-----------------|
| (3) a. [Ed hoped] to repair it. | base kind, + to |
| b. [Ed helped] repair it. | base kind, - to |
| c. [Ed remembered] repairing it. | -ing kind |
| d. [It got] repaired. | -en kind |

- | | |
|--------------------------------------|-----------------|
| (4) a. Ed intended Liz to repair it. | base kind, + to |
| b. Ed let Liz repair it. | base kind, - to |
| c. Ed remembered repairing it. | -ing kind |
| d. Ed had it repaired by Liz. | -en kind |

(4)에서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구 *Liz*는 의미상 부정사의 주어 기능을 하기보다 본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Huddleston(1984:216)은 가정한다. 따라서 (4a)의 통사구조는 (5b)라기보다 (5a)라고 보고 있다.



주절(Main Clauses)의 기능을 해도 (8)에서처럼 전부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의 출현은 수의적이다. 내포절(Embedded Clause)의 경우도 보문소(Coplementizer)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통절(Ordinary Clauses)은 [C S]형인 S' 구성성분을 취한다. 이 절의 구조는 아래 (9)와 같다.



그런데, 이 절이 동사의 보어로 기능을 하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어절의 형태에 따라서 주 동사를 하위분류할 수 있다. Radford (1988:353-61)는 절보어(Clausal Complements)를 보통절, 예외절, 및 소절의 세가지 구조적 유형의 절보어로 분류하고 그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로, 보통절(Ordinary Clauses)을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다. 이 절은 S' 구조 즉 보문소와 굴절소(INFL=I) 성분을 포함한다. 의사소통의 기능에서 볼 때 이 보어절은 다음 예에서 차례대로 보듯이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또는 감탄문이 되기도 한다.

- (10) a. I knew [that you'd turn up] (declarative)
 b. The judge ordered [that the sentence be carried out] (imperative)
 c. He asked me [whether I was leaving] (interrogative)
 d. I noticed [what a pretty dress she was wearing] (exclamative)

이와 같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 보어 기능을 하는 보통절의 종류가 다르다. 동사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그 뒤에 오는 보어절의 통사적 속성을 Radford(1988 : 35)는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주고 있다.

- (11) a. 요구(Mandate) 술어는 가정법 보어를 취한다.
 b. 의문 및 의심(Interrogative and Dubitative) 술어는 의문보어를 취한다.
 c. 희구 및 주장(Desiderative and Assertive) 술어는 for를 포함한 부정사보어를 취

한다.

d. 인지 및 주장(Cognitive and Assertive) 술어는 평서문보어를 취한다.

(11)이 보인바와 같이 보어 기능을 하는 보통절의 통사구조가 상위절 동사의 의미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이른바 예외절(Exceptional Clauses)을 보어로 취하는 유형의 동사가 있다. 예외절의 범주에 속하는 보어는 부정사보어(infinitive complement)의 한 부류다. 이러한 보어절을 취하는 타동사의 집합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인지 및 주장동사다.

- (12) a. I KNEW [there to be no escape]
 b. I BELIEVE [you to be innocent]
 c. I'd never IMAGINED [any one to be so beautiful]
 d. The doctors REPORTED [the traffic to be heavy]

이러한 동사들의 예외절은 PRO 주어를 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외절은 명시주어(Overt Subject)를 필수적으로 취한다.

마지막으로, 예외절과 비슷한 소절(Small Clauses)이 보어기능을 한다. 이 소절보어는 예외절과 같은 분포와 통사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소절의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규범적인 형태(canonical form)를 가진 것으로 일반화한다.

- (13) a. [NP XP]
 b. [NP PP] I'd like to have [_{PC} you with me]
 [NP AP] I won't have [_{AC} you moody all the time]
 [NP NP] We'll soon have [_{NC} you a new man]
 [NP VP] I won't have [_{VC} you know that I'm not that kind of person]

소절구조에서 술어기능을 하는 성분은 (13b)에서 보듯이 PP, AP, NP, 또는 VP등이다. 이네 구조를 일반화하면 (13a)로 표기할 수 있다. 이 소절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Ⅲ. 소절의 통사구조

소절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를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Bowers(1993 : 1)는 (14)와 같은 소절의 적절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준다.

(14) I consider John crazy /a fool.

한가지 분석은 복합술어 이론(complex predicate theory)으로 (14)에서 *John*이 복합술어 *consider crazy / a fool*의 직접목적어라는 것이다. 이 분석을 따르는 연구는 Chomsky(1955), Bach(1979), Dowty(1978, 1982), Bowers(1983), Jacobson(1983), 그리고 Larson(1988) 등이다. 나머지 한가지 분석은 소절이론(small clauses theory)으로서 *John crazy/ a fool*의 D-구조를 절과 같은 구조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발전시킨 연구는 Chomsky(1981), Stowell(1981)을 들 수 있다.

김영현(1992:23)은 소절을 그 술어가 주절동사로부터 의미역상 독립의 여부에 따라 보문 소절(complement small clauses)과 부가소절(adjunct small clauses)로 분류한 것을 소개한다. 또 보문 소절의 통사구조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

(15) S 범주: Chomsky(1981), Rothstein(1983)

S'범주: Kitagawa(1985)

술어구: Stowell(1981,1983)

부가구조: Chomsky(1986)

INFL': Hornstein & Lightfoot(1987)

Ⅲ. 1 소절의 IP범주 분석

(15)에 열거한 여러 가지 분석이 소절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김영현(1992)은 이 소절구조를 IP로 가정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통사자질 복합체로 C와 I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소절의 통사구조를 (15)처럼 서로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필자에 따라서는 그 구조분석이 바뀌어진 경우가 많다. (15)와 그외의 구체적인 내부구조는 (20)과 같다.

- (16) a. $C \longrightarrow [\alpha\text{WH}, \alpha\text{FINITE}]$
 b. that /e = [-WH, +FINITE] for /e = [-WH, -FINITE]
 whether = [+WH, +/-FINITE] if = [+WH, +FINITE]
- (17) a. $I \longrightarrow [\alpha\text{TENSE}, \alpha\text{AGR}]$
 b. [+TENSE] \longrightarrow [α PAST] [+AGR] \longrightarrow [α NUMBER, β PERSON]
 c. 서법동사 /e = [+TENSE, +AGR] to /e = [-TENSE, -AGR]

위 (16)과 (17)에서 C공범주는 [-WH, -FINITE], I공범주는 [-TNS, -AGR]이라는 통사 자질 복합체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구조를 가정한다. 이 공범주들은 통사구조 층위에서 어휘 항목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경우다.

(13a)에서 소절의 통사구조를 [NP XP]로 일반화하고, (13b)에 [XP]의 범주들을 PP, AP, NP, 또는 VP라고 예시한바 있다. 이런 보어소절의 통사구조를 IP로 가정한 김영현은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 (18) a. I haven't seen [_{IP} John [_I [_I e] [_{VP} meet his girlfriend]]]
 b. We don't want [_{IP} John [_I [_I e] [_{VP} sleeping]]]
 c. I want [_{IP} my shoes [_I [_I e] [_{VP} repaired]]]
- (19) a. I consider [_{IP} John [_I [_I e] [_{AP} honest]]]
 b. You'll soon find [_{IP} John [_I [_I e] [_{NP} a genius at physics]]]
 c. They expect [_{IP} John [_I [_I e] [_{PP} out of the team]]]

위와 같은 구조는 모든 소절이 IP이며 이 IP의 핵인 I는 [-TNS, -AGR]의 자질을 가진 공범주라는 것이다. 또 소절의 술어 기능을 하는 구조의 성분이 VP, AP, NP, 혹은 PP인 것을 (18)과 (19)에서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5)에 열거한 대로 소절의 통사구조를 분석한 구조들을 하나씩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20) a. I consider [_S [_S John [_{AP} honest]]]
 b. I consider [_S [_{IP} John [_I e] [_{AP} honest]]]
 c. I consider [_I' John [_I e] [_{AP} honest]]
 d. I consider [_{AP} John [_{AP} honest]]
 e. I consider [_{AP} John [_A' very intelligent]]
 f. I consider [_A' John [_A' honest]]
 g. I consider [_{IP} John [_I' [_I e] [_{AP} honest]]] (= (19a))
 h. I consider [_{μP} John [_{μ'} μ [_{AP} honest]]]
 i. I consider [_{PrP} John [_{Pr}' [_{Pr} e] [_{AP} honest]]]

(20)에서 보듯이 [John honest]라는 구조를 여러 가지 통사구조로 분석했다. (20a-f)는 기존 연구들이 분석한 것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그 주장이 여러번 바뀌어진 경우도 있다.²⁾

Tak(1993:143)은 소절 연구에 다음과 같은 논점을 다루고 있다.

- (21) a. 주어-술어 관계가 구조적인가?
 b. 소절은 통사적인 구성소인가?
 c. 소절의 범주유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Tak은 VP-내 주어(VP-Internal Subject) 가설하에 의미역 접근을 제안한다. 주어-술어 관계를 외연 논항에 의미역 표시를 통해 포착한다. 또 통사구조를 (20d)로 가정하지만, 그 구조를 의미역(thematic role)의 유무에 따라 설명한다. 즉 소절이 어휘핵(i.e., VP, AP, PP, 및 DP)의 최대 투사범주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소절의 주어 위치에는 허사가 올 수 없고 의미역(thematic) NP만이 올 수 있다는 증거를 아래 예문으로 보여준다.

- (22) a. * I consider there a problem.
 b. * I could see there glow two eyes in the shadows.

2) (20h)는 안희돈(1991)의 분석이고 (20i)는 Bowers(1993)의 분석이다. (20h)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한 점에서 (20i)와 같다. 그 중에서도 (20i)의 구조는 많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 (23) a. * I saw there be too many people sick.
 b. * I made there be too many people sick.

(22)에서 보듯이 소절의 주어는 허사 *there*임으로 비문이다. (23)의 소절의 어휘핵 구조가 VP인데 (22)와 같이 비문이다. 이는 소절의 주어는 주제의 NP만이 올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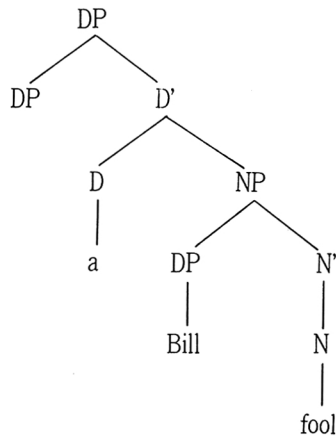
Tak(1993:157)은 소절에서는 NP-이동이 없고 예외절에서는 NP-이동이 있다는데에 이 두 절의 차이를 둔다.

- (24) John saw [_{VP} them leave]

- (25) John believed [_{IP} Bill [_{I'} to [_{VP} t have seen Mary]

(24)에서 소절의 주어 *them*은 상승이동을 못하는데 (25)에서 예외절의 주어 *Bill*은 격을 받기 위해 VP 구조 속에 흔적을 남기고 I 구조의 Spec 위치로 상승을 했다. 그러나 소절의 주어는 예외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26)에서 보여주고 있다.

- (26) John considers



(26)에서 N의 Spec에 있는 주어 *Bill*이 상위동사로 부터 격을 받기 위해서는 D의 Spec 위치

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20g)가 다른 분석보다 보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거의 요약이다. I 공범주 가정은 소절의 술어동사가 시제와 일치소에 의해 굴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다음 (27a)에서 보듯이 소절의 I 범주의 자질이 [-TNS, -AGR]임으로 소절의 주어가 주격을 할당받지 못한다. (27b)의 소절도 VP 구조 자체가 없으므로 그 주어가 주격을 받을 수 없다.

- (27) a. I consider [him / *he sleeping]
 b. I consider [him / *he honest]

그럼에도 보어소절의 성분이 문장과 같은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첫째 증거로 소절 주어 자리에 허사 *it*를 대체해도 좋은 문장이 된다.

- (28) a. I consider [*it* time to leave]
 b.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he should have gone]
 c. I want [*it* snowing on my birthday]

소절의 어휘적 NP가 주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유동강조 재귀사(floated emphatic reflexive)가 있는 문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 (29) I consider [the president entirely responsible *him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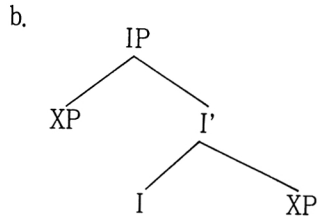
이 유동강조 재귀사는 문법상의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29)에서 그 선행사가 되는 명사구인 *the president*는 소절의 주어임에 틀림이 없다.

소절이 CP 구조가 될 수 없는 증거는 소절의 주어가 IP 범주의 to-부정사절의 주어처럼 NP-이동될 수 있는 다음 예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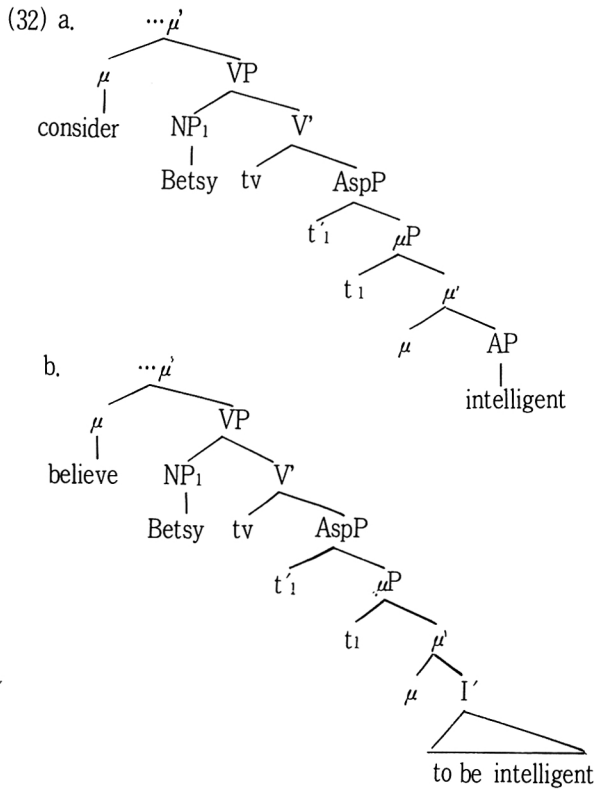
- (30) He was considered [t honest]

그 외에 여러가지 논증을 제시하고 IP 범주의 내면구조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고 있다.

- (31) a. (i) $IP \rightarrow XP I'$
 (ii) $I' \rightarrow I XP$



(20h)의 구조는 새로운 범주 μP 를 선정한 것이 특이하다. Ahn(1991:111)은 영어의 소절과 예외절(ECM)의 S-구조가 비슷하다고 보고 그 S-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2)의 a와 b의 구조상의 차이는 소절의 마지막 성분이 AP인 반면에 예외절의 것은 I'이다. 후자의 경우 I'로 설정해야 할 근거를 Ahn(1991:93-98)은 동사구-이동(VP-movement)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33) a. Criticize himself_{*1}/2. John₁ thinks Bill₂ would not
 b. [_{AspP} t₁ [_{μP} t₁ [_{VP} criticize himself₁/*₂]]], John₂ thinks Bill₁ would not t
 c. [[_α t_i criticize himself_j] John_i thinks Bill_j never will t]
 d. [[_α t_i proud of himself_j] John_i thinks Bill_j will never be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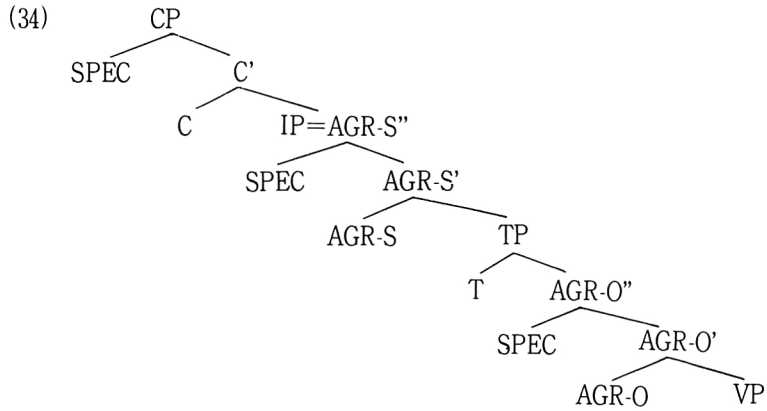
(33a)에서 *himself*가 선행명사 *John*과 *Bill* 중에서 *Bill*과 공지시될 때만 좋은 문장이다. 즉 앞으로 이동된 *criticize himself*의 주어가 *Bill*이라는 선행지배 현상을 설명하려면 그 이동된 성분이 단순한 VP가 아니라 AspP 범주라야 한다는 이동과정을 (33b)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Bowers(1993:623)는 (33c)에서 보듯이 이동된 성분 α 를 PrP라는 새로운 기능범주라고 한다. 또 소절의 술어가 형용사인 (33d)에서도 α 범주가 PrP라고 분석하고 VP와 AP를 같은 현상으로 본다. PrP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다.

III. 2 소절의 Pr범주 분석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선행선상의 순서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구조를 이루는 계층(hierarchy) 기능도 한다는 구조주의 문법이 등장한 이후 이 가설이 수용되어 왔다. 초기 생성변형문법에서는 문장의 통사구조를 분석하는데 구를 구성하는 층위를 두 단계로 설정했다. 또 규칙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한수의 규칙에 변형작용을 가함으로 무한수의 문장을 생성하는 문법모형을 연구해 왔다.

Chomsky(1970)는 동명사적 명사형(*gerundive nominal*)과 파생 명사적 명사형(*derived nominal*)이 생산성, 의미관계, 및 내부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 두 구조의 통사적 유사성을 일반화하려 시도했다. 그러기 위해 이 두 층위(two-level) 가정으로 구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보완으로 구구조의 층위를 둘 이상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이 Jackendoff(1977:29-37)의 X' 규약(X-bar Convention)으로 모든 통사범주를 일반화 한다. Chomsky(1991:30)는 보문소 C를 핵으로 하는 확장 절(full clause)의 구성성분을 기능 구범주와 어휘범주로 나눈다. 그런데 이 모든 구범주들이 세 층위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기능 범주로는 CP와 IP 둘을 가정하던 것과는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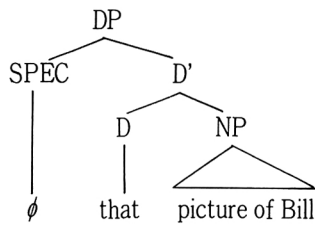
Chomsky(1991:33)에서는 DP도 수용한다. 이들 기능구조는 아래와 같다.



DP 기능구조는 핵 D의 자리에 한정사 소유일치요소(Determiner possessive agreement element) 혹은 대명사로 채워진다. 다음 구조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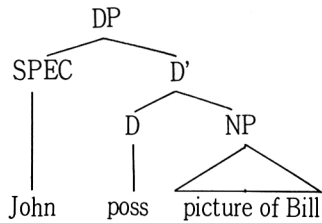
(35) a. [_{DP} that [_{NP} picture of Bill]]

b.



(36) a. [_{DP} John POSS [_{NP} picture of Bill]]

b.



(35)에서 DP의 지정어 자리는 비어있으며 그 기능적 핵 요소는 *that*이다. 그러나 (36)에서는 DP 구조의 주어인 *John*이 지정어 위치에 있고 그 기능적 핵은 POSS이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D 핵에 N-상승(N-raising) 변형이다. 핵 POSS는 음운론적 변형으로 *John*에 첨가되어 *John's*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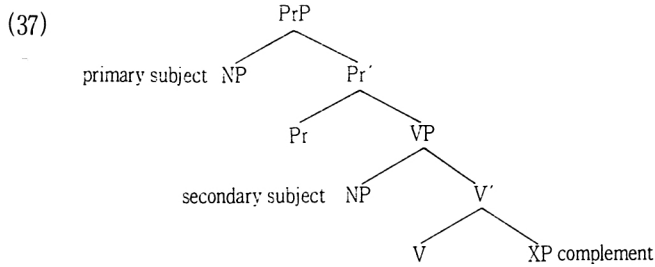
III. 2. 1 Bowers의 PrP 가설

Bowers(1993:591-3)는 (20h)에서 예시한 대로 SC 성분을 구조적으로 근거를 둔 서술(predication) 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능범주에 X' 이론을 확장하면, 주절과 SC 서술의 구조에서 통일된 구조적 정의와 통일된 의미적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a) 내주어 가설(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반영하고; (b) 주절과 SC 서술에 대한 통일된 구조적 정의를 하고; (c) 엄격하게 통일된 두 계층의 X'이론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새로운 기능범주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 새 범주 XP의 X를 Pr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기능범주로 가정한다: (a) 외주어 논항(external arguments)의 규범적인 D-구조 위치는 [Spec, Pr]이며; (b) Pr⁰은 어느 것이건 어휘범주 Y의 최대투사범주 YP를 기능선택(F-select)하며; (c) PrP는 I⁰에 의해 기능선택되거나 V에 의해 보어로 하위범주화 될 수 있으며; (d) Pr의 의미기능은 서술(predication)이다.

위에서 제안한 이론의 몇가지 장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은 외주어 논항 개념과 소절 및 주절에 대한 서술관계에 대한 통일된 구조정의를 제공한다. 정의에 의하여 외주어 논항은 [Spec, Pr]이다. 또 정의에 의해서 [Spec, Pr]의 논항과 Pr의 논항간에 서술관계가 성립된다. 둘째로, 이 이론은 X'이론의 연구들 안에서 소절을 관찰할 적절한 마디를 발견해 준다: SC는 단순히 PrP 즉 Pr의 최대투사 범주다. 셋째로, 이 이론은 통일성 있는 두 계층(two-level) 설명의 X' 이론을 유지하게 해준다. 넷째로, 이 이론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영어 통사구조의 난제인 다음 문장을 해결해 준다. *I regard John as crazy/an idiot*에서 *as*의 통사적 기능을 보자. *I consider John crazy/an idiot*에는 *as*가 없지만 있는 문장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그런데 이 *as*에 배당할 수 있는 유일한 어휘범주는 P인데 P는 AP를 보어로 취하지 못하므로 이 분석은 타당치 않다. 그렇지만 *as*를 Pr의 어휘화로 보면 된다. 다섯 번째로, 만일 Pr의 의미기능이 논리형태 계층에서 서술이라면, 서술의 통사 및 의미관계가 자명해 진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PrP의 D-구조를 아래와 같이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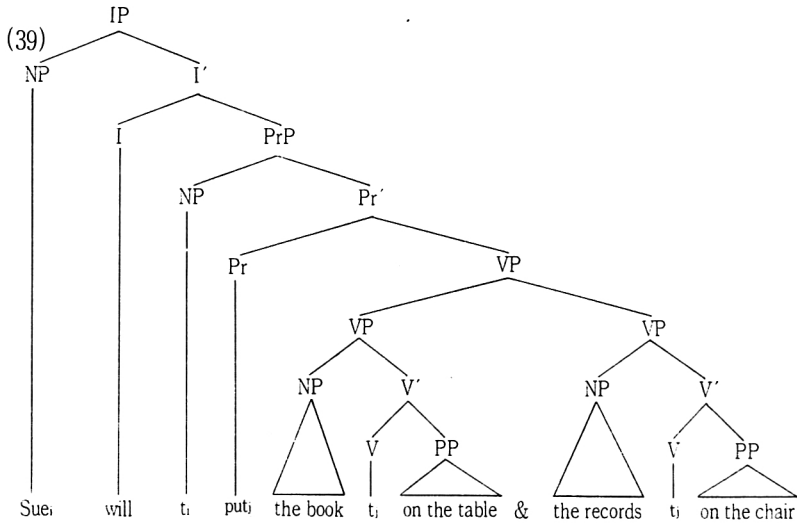


위 (37)에서 Pr의 Spec 위치에 있는 NP와 V의 Spec 위치에 있는 NP 둘 다 주어로 분석하는데 전자는 일차 주어이고 후자는 이차 주어라고 구별한다. 이 일차 주어가 I의 Spec 위치로 상승하여 외주어 논항이 된다. 위 구조에서 V의 보어인 XP 범주가 될 수 있는 성분중 하나가 소절 즉 PrP이다. Bowers(1993:602-633)는 PrP 범주 가정의 경험적 논증(empirical arguments)을 많이 들고 있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소개한다. 첫째로, 등위구조(Conjoined Structures)에서 PrP 기능범주를 가정한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 예로 목적어와 그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두 절이 등위접속될 수 있다.

(38) a. Mary considers John a fool and Bill a wimp.

b. John regards professors as strange and politicians as cree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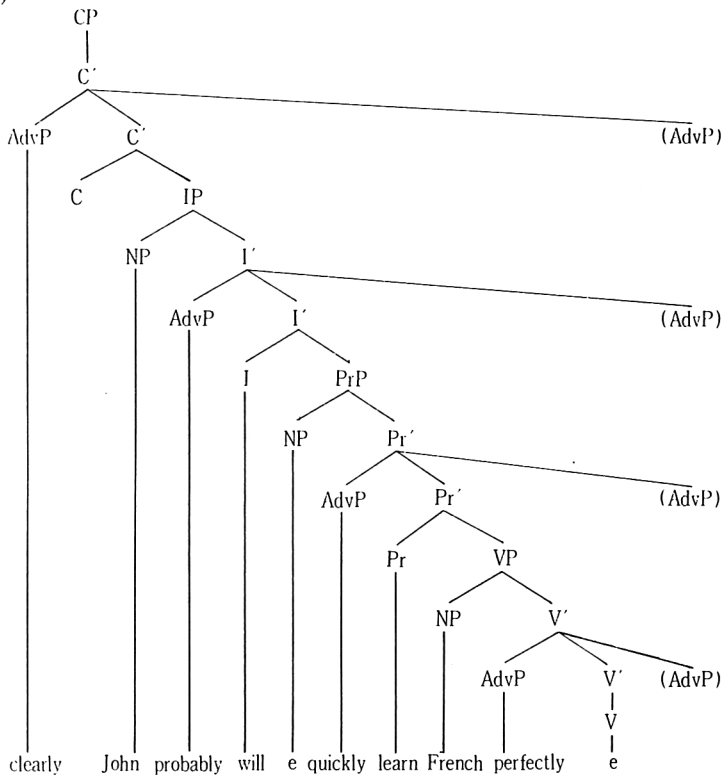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는 표준분석 VP 하에서는 생성될 수가 없다. 그러나 PrP 이론에서는 (39)에서 보듯이 등위접속된 VP에서 V를 이동시킨 현상으로 (40)처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위 (39)에서 등위접속된 VP 구조가 I와 V 사이에 기능범주 Pr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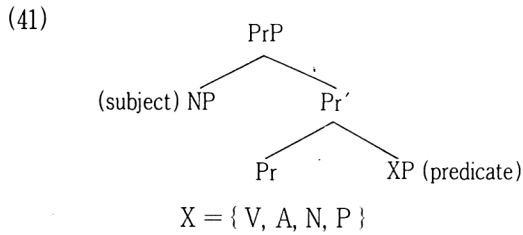
경험적 논증 두번째로, Pr 범주의 필요성은 부사의 위치로 설명할 수 있다. Travis(1988)를 따라 부사가 핵(heads)에 의해 허가된다고 가정한다. 즉 각 부사부류는 단지 한 핵에 의해서만 허가된다고 가정한다. Bowers(1993:606-7)는 양태부사(manner adverbs)를 동사의 앞에 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한다. 이는 이 두 부사류가 서로 다른 범주에 의해 허가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 이론에서 부사를 허가하는 세가지 가능한 범주는 V, I, 및 C이다. 만일 양태 부사를 두 부류로 보면, 그 중 하나를 허가하는 핵이 필요하다. 이 핵을 Pr로 가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다음 예문에서 *perfectly*는 V에 의해서, *quickly*는 Pr에 의해 허가된다고 보면 좋은 문장만 생성된다.

(40)



위 (40)에서 동사핵이 허용한 부사 *perfectly*는 동사와 직접목적어 사이에는 오지 못한다. 다음으로 Pr핵이 허가한 부사 *quickly*는 상승된 동사의 왼편이나 Pr⁰의 보어인 VP 전체의 오른편에 분포된다. 그 다음으로 부사 *probably*와 *clearly*도 각각 I와 C에 의해 허가되어 그 분포위치가 (38)이 보여준 것과 같다.

지금까지 기능통사범주 Pr의 가정이 문장구조 분석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리고 동사의 절보어 중 소절보어에 (20)에 열거된 통사범주가 아닌 PrP 기능범주로 분석하고 있다. 이 Pr의 최대투사 범주인 PrP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보일 수 있다.



소절을 PrP로 분석한 (41)에서 Pr의 Spec 위치에 있는 주어 NP는 술어 XP를 취하는데 이 XP 성분중 X에 해당되는 어휘핵이 V, A, N, 또는 P이다. 그 예문을 보자. 앞서 (13)에 일반화한 소절의 규범적인 형태가 PrP 가정하에서는 아래와 같다.

- (42) a. [IP I'd like to have [PrP you [Pr' [Pr e] [PP with me]]]]
 b. [IP I won't have [PrP you [Pr' [Pr e] [AP moody all the time]]]]
 c. [IP We'll soon have [PrP you [Pr' [Pr e] [NP a new man]]]]
 d. [IP I won't have [PrP you [Pr' [Pr e] [VP know that I'm not that kind of person]]]]

(13)에서는 소절의 술어기능에 따라 소절 전체의 범주를 PC, AC, NC, 또는 VC로 분석했다. 그러나 (42)에서는 소절 전체의 범주는 PrP로 하고, 소절 내의 술어를 그 구조에 따라 PP, AP, NP, 또는 VP로 구분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40)의 분석이 각 소절의 구성성분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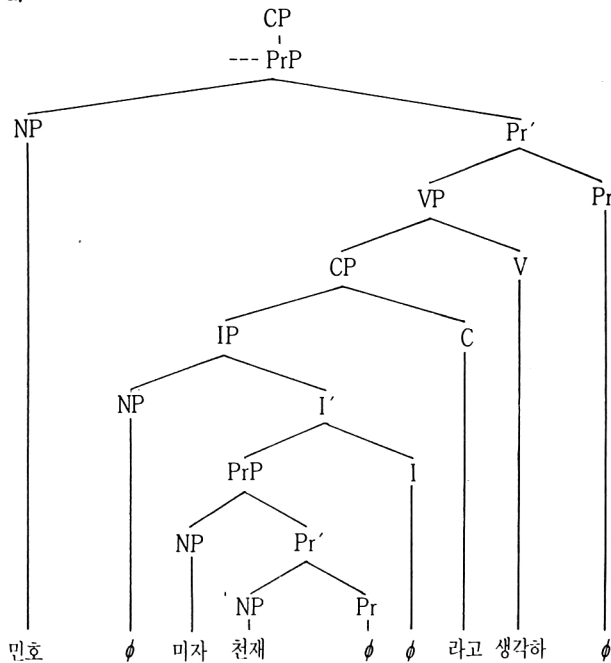
III. 2. 2 PrP 범주의 보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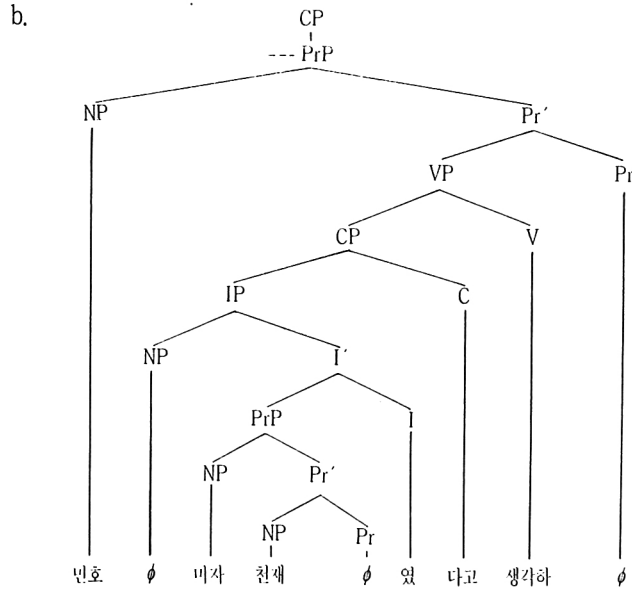
Bowers(1993:602)는 (37)의 D-구조를 보편성이 있다고 불어등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구조 PrP를 설정하는 것이 국어 문장분석에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앞의 (41)에서 XP 기능을 하는 범주의 X에 해당되는 어휘가 V, A, N, 및 P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영어의 현상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구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PrP NP NP] 주어를 가진 내포절을 보자.

- (43) a. 민호는 미자가(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 b. 민호는 미자가(를) 천재라고 생각했다.
- c. 민호는 미자가(를) 천재였다고 생각한다.
- d. 민호는 미자가(를) 천재였다고 생각했다.

(44) a.





(43)에서 a와 b의 D-구조는 (44)의 a이고, c와 d의 D-구조는 (44)의 b라 할 수 있다. 이 두 구조의 차이는 내포문 a에는 시제(tense) 형태소가 없고, b에는 있다는 것이다. (43)의 a와 b에서 내포문의 시제는 형태소가 없지만 상위문의 시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영어의 [him a genius]와 같은 유형의 소절은 국어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기능범주 I의 보어를 VP가 아닌 PrP로 분석하는 것이 문장구조 분석에 더 편리한 것 같다.

다음으로 [_{PrP} NP AP]의 구조를 가진 내포절을 검토해 보자.

- (45) a. 민호는 미자가(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b. 민호는 미자가(를) 예쁘다고 생각했다.
 c. 민호는 미자가(를) 예뻐다고 생각한다.
 d. 민호는 미자가(를) 예뻐다고 생각했다.

위 (45)도 (43)과 같은 구조로 시제가 해석됨은 알 수 있다. 한가지 더 특기할 현상은 (43)과 (45)에서 내포문의 주어인 [미자]가 주격이나 목적격 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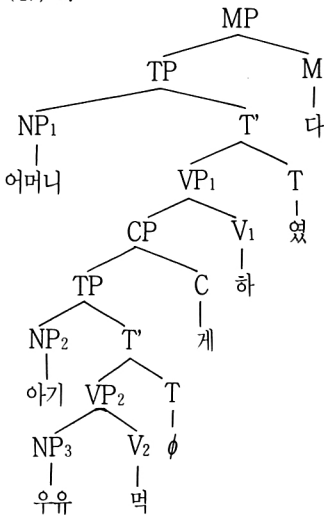
*I believe him to be honest*와 *I believe that he is honest*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그 구조에 따라 *him* 또는 *he*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주격 또는 목적격 분포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P 범주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 한국어의 예를 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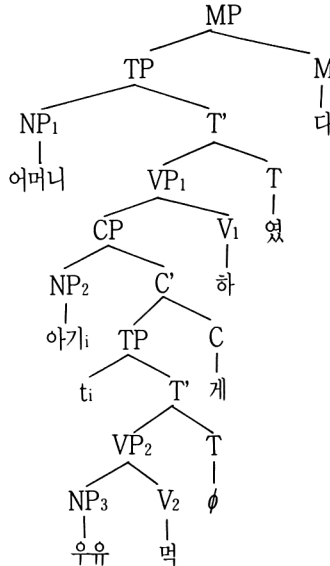
- (46) a. 어머니가 아기가 우유를 먹게 하였다.
- b. 어머니가 아기를 우유를 먹게 하였다.
- c.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홍영예(1994)는 위 문장들의 구조적 차이를 다음 수형으로 보여준다. (45a)와 (45b)는 각각 (46a)와 (46b)의 구조다.

(47)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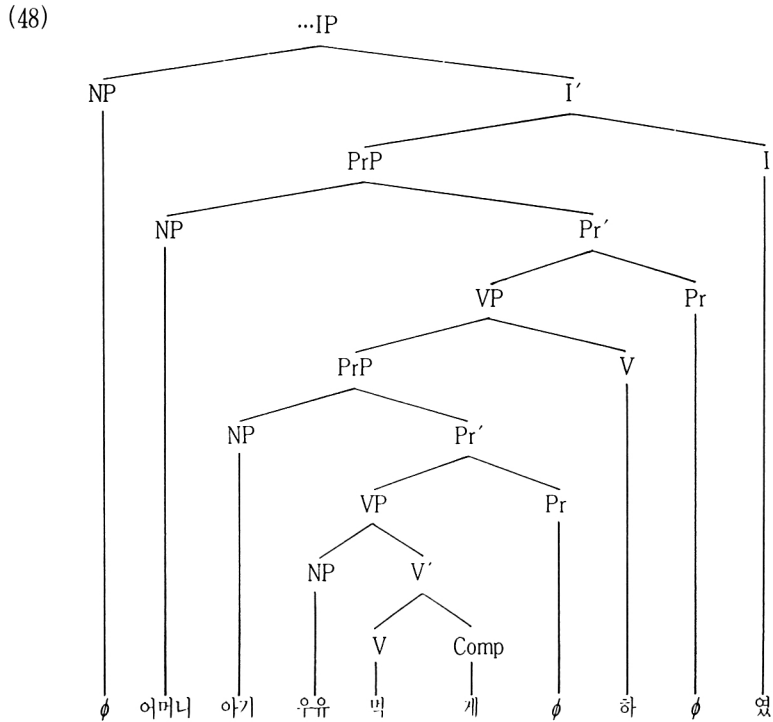
b.



위의 두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보면 내포문의 주어가 b에서는 상승이동을 했다. 문장 a에서는 NP₁과 NP₂ 둘다 INFL에 의해 주격을 받는다. 그러나 b의 NP₂는 C'의 Spec 위치로 이동이 되어서 여격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달리 PrP 분석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하나의 구에서 a와 b의 두 문장을 도출할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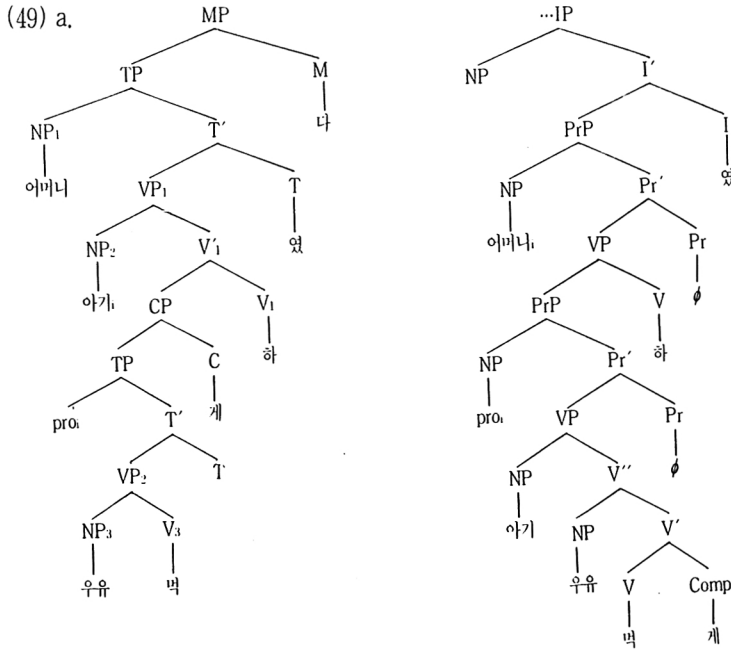


(48)은 VP-내주어 가설을 수용하여 분석한 (46) a와 b의 수형이다.³⁾

[NP 어머니]가 상승이동을 한 후 [NP 아기]가 Pr'의 Spec으로 이동하면 주격조사가 실현되고 V'의 Spec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목적격조사가 실현된다고 가정하자. 그 구체적인 과정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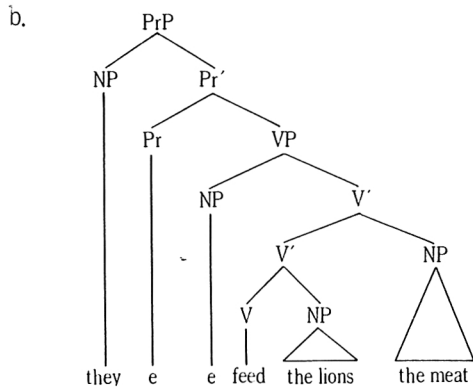
다음으로 (46c)의 구조를 보자.

3) (48)에서 $V' \rightarrow V \text{ Comp}$ 라는 규칙은 한재현(1981:3)이 설정해서 동사와 보조동사를 연결하는 사이에 Comp의 형태소로 [어, 아, 지] 등이 실현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48)의 [먹게]가 $V' \rightarrow V \text{ Comp}$ 로 분석할 수 있는지는 다음 논문에서 밝히려 한다.



(49)의 a는 홍영예의 분석이고 b는 PrP 범주를 가정한 분석이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b의 경우 간접 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둘 다 같은 VP의 성분이다. 이것은 Bowers(1993:638)가 영어를 분석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Bowers와 정확히 일치되는 분석은 아니다. 그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0) a. They fed the lions the meat.



(50b)를 보면 목적어 위치가 둘다 VP의 하위성분이다. 동사가 Pr위치로 이동하고 목적어 *the lions*가 상위 NP위치로 이동한 후 도출된 문장이 (50a)다. (50b)의 구조에도 목적어가 둘다 VP의 하위성분이며 여격 NP가 대격 NP보다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즉 (49b)와 (50b)에서의 VP구조가 방향은 달라도 여격 NP가 상위에 자리한 것은 같다.

IV. 결 론

영어에서 동사 뒤에 구(phrase) 또는 (clause)이 보어로 나타난다. 그중 동사의 절 보어의 종류는 객관 절, 예외절, 및 소절로 하위분류되며 이 절들이 앞에 오는 동사의 의미적 혹은 통사적 속성에 따라 보어로 선택된다.

세 종류의 절보어 중에 소절(Small clause) 보어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했다. 이 소절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소절의 통사구조를 분석한 여러가지 내용을 (20)에 소개했다. 그 중에 Bowers(1993)의 PrP 분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분석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보편성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에는 영어의 소절에 해당하는 구조에 시제(tense)가 수의적으로 올 수 있어서 소절을 PrP로 분석한 것이 보편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중 목적어가 있는 구문에서는 기능구조인 PrP설정이 (48)과 (49)에서 보듯이 그 구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능구조 PrP를 가정하는 것이 문장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또 영어의 소절을 분석한 앞선 연구중에서 PrP 분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더 깊이 연구하면,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는데도 PrP 범주설정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견된다.

참고문헌

- 김영현. 1992. 영어 보문소절의 IP 범주 구조 분석. 언어. 17권 1호, 21-60.
- 한재현. 1981. 생략과 대응현상. 서울, 한신문화사.
- 홍영예. 1994. 사역문에서의 격조사 대체현상.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발표논문.
- Ahn, Hee-don. 1991.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Bach, Emon. 1979. Control in Montague Grammar. Linguistic Inquiry 10:515-531.
- Bowers, John. 1983. Conditions on logical form. Linguistic Analysis 11:27-101.
- _____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591-656.
- Chomsky, Noam. 199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75).
- _____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Jacobs, R. and P.S. Rosenbaum (eds),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84-221.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6.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
- _____ 1991.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 Dowty, David. 1978. Governed transformation as lexical rules in a Montague Grammar. Linguistic Inquiry 9:393-426.
- _____ 1982. Grammatical relations and Montague Grammar, in Pauline Jacobson and Geoffrey K. Pullum(eds), The Nature of syntactic representation. Dordrecht: Reidel.
- Hornstein, Norbert, and David W. Lightfoot. 1987. Predication and PRO. Language 63.
- Huddleston, Rodney.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Mass. New York.
- Jackendoff, R, S. 1977. X'-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
- Jacobson, Pauline. 1983. Grammatical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1983.

- Winter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Minneapolis, Minn.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al. *CLS*, 210-220.
- Larson, Richard.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35-91.
- Radford, Andrew. 1988. *The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 Press.
- Rizzi, Luigi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Rothstein, S. D. 1983. *The syntactic form of pred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towell, Tim.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_____ 1983. Subjects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285-312.
- Tak, Ki-Hyun. 1993. Small clauses and predication in English(I).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8, 141-163.
- Travis, Lisa. 1988. *The syntax of adverbs*. Paper Presented at NELS 19, Itaca, N.Y.

ABSTRACT

Small Clauses of Verb Complement and its Structure

Han Jae-H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yntactic structures of the small clauses in English and Korean and to make a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In Section 2, previous studies are reviewed on the clausal complements of verbs. The clausal complements can be subclassified into three types : full clauses, exceptional clauses, and small clauses. The distribution of each type is dependent upon the semantic and syntactic properties of the main verb.

In Section 3, we consider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 small clauses which function as the complement of the main verbs. To date, the small clauses have been analyzed as nine different syntactic categories : that is, S', IP, I', AP, A', μ P, PrP, etc. Among them, the PrP analysis seems to be the most adequate in explaining English sentences and the small clause constructions.

In Section 4, the PrP analysis is applied to some structures of Korean and a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is attempted.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P analysis of apparent small clauses in Korean is inappropriate because embedded sentences in Korean can freely take either overt or covert tense morphemes. However, the PrP analysis seems to be useful with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Consequently, the PrP is an integral abstract syntactic category under the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in the discussion of phrase structure rules of English and Korean sentences.